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urkey's PascoGas books first newbuilding with gas carrier order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이스탄불 소재의 PascoGas로부터 40,000CBM급 LP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4,600~4,700만달러라고 보도됨. PascoGas는 발주사실을 인정하며 ESG전략에 맞춰 LPG추진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힘. (TradeWinds)

CMA CGM poised to sign \$1.74bn deal for 12 LNG-fuelled boxship newbuildings

프랑스의 CMA CGM이 Jiangnan Shipyard와 Hudong-Zhonghua에 13,0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을 각각 3+3척씩 발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1.40~1.45억달러라고 보도됨. (TradeWinds)

Seaspan's \$1.38bn containership splash marks first orders at CSSC shipyards

Seaspan이 15,500TEU급 Scrubber 탑재형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납기는 2023년 하반기 ~ 2024년까지라고 보도됨. 중국의 Hudong-Zhonghua와 Jiangnan Shipyard가 각각 3척씩 건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중-대우조선 결합심사, 상반기 중 'EU 승인' 기대 고조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르면 상반기 중 나와 연내 결합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인수기한 연장을 위한 수정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 결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대한조선, 잇단 선박 수주 성공

대한조선은 최근 그리스 선사 두 곳으로부터 아프리카급 석유제품운반선 1척과 원유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대한 조선은 이번에 수주한 선박 2척을 포함해 1분기에만 총 8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중공업, 中 쉬다보 원전 계측제어 기자재 수주

두산중공업이 중국 CTEC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an-Machine Interface System)의 주요 기자재인 지진자동정지설비(Industrial Anti Seismic Protection Syste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지진자동정지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을 거쳐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연안에 위치한 쉬다보 원전 3·4호기에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발주처와 추가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됨. (조선비즈)